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주체110(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께 전원회의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전원회의소집의 기본 목적과 그 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첫째인 2021년도 당 및 국가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대회가 제시한 발전과 변혁의 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의 한해 한해의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의 발전단계에 있어서나 우리 당과 국가의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있어서 대단히 관건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하여 우리모두는 올해 사업 못지 않게 방대하고도 중대한 다음해 사업의 전략적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있고 또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을 보다 선명하게 예측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할수 있는것들을 잘 알고 우리의 가능성과 자신심을 더욱 명확히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지금의 대내외형세를 정확히 리해하고 정확히 판단하며 정확한 투쟁방침을 틀어쥐고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정확한 걸음을 옮겨디더야만 실제적인 발전적변화로써 다음단계의 투쟁으로 이행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해 사업을 긍지스럽게 총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령정성을 가지고 교훈적인것을 먼저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일련의 교훈들이

혁명적인 정책들을 더욱 보완하고 우리의 더 큰 발전잠재력을 불리일키는 추동력으로 되게 하자는데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중요한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 혁명발전의 커다란 실천적의의가 있다고 하시었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도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내각총리가 제기한 보고와 부문별토론들을 청취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먼저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첫째 사업정형을 분석총화하시었다.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실천강령을 높이 들고 긴장하고도 보람있게 투쟁해온 2021년은 엄혹한 난관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으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이라것이 당중앙위원회가 내린 총평이다.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사업에서 내세운 총적인 목표와 지향은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안아오는 것이었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 사업을 포치하고 추진하면서 계획작성에서부터 발전지향성과 견인성, 과학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 집행에서 무조건성과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세우는데 특별한 힘을 넣었으며 일군들을 제때에 각성분발시키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적시에 수립하였다.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기록되었다.
(2면으로 계속)